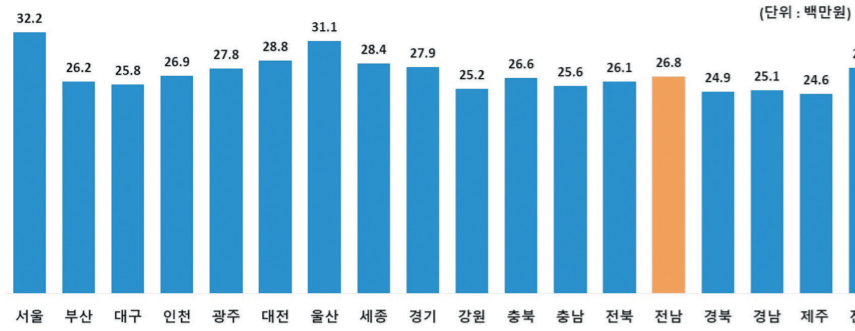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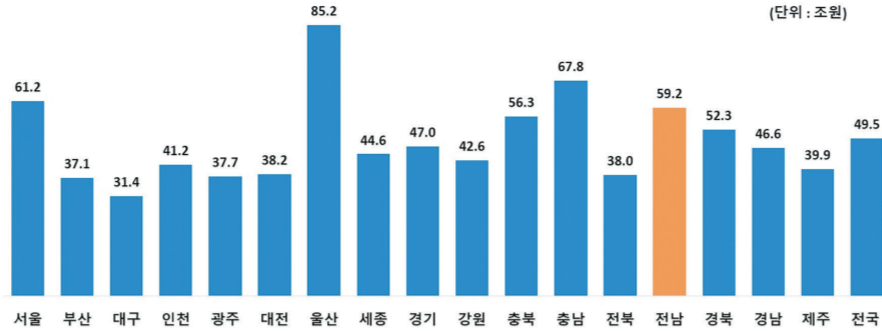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남 1인당 총생산 전국 4위·1인당 개인소득 8위

국가데이터처 2024년 지역소득... GRDP 104조 전년보다 5.2% 늘어

전남지역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면서 '1인당 총생산'은 전국 4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8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23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시·도 지역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04조 원으로 2023년보다 5조 2천억(5.2%)이 늘었다. 지역내총생산은 1년 동안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은 5천918만 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 원)을 웃돌았으며, 전년보다 5.9% 증가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남의 지역내총생산 증가 요인으로 제조업(6.4%)과 운수업(4.7%)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년도에 부진했던 석유화학산업의 일부 회복과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개선, 수출 증가로 실적이 늘어난 수상운송업 등의 영향

이 총생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소득 중 가계 부분만 반영해 개인의 실제 소득수준과 가장 가까운 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은 2024년 2천680만 원으로 전국 8위를 달성했다. GRDP 통계가 작성되고 처음으로 9위에 진입한 2022년 이후 지속해서 한 자릿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도내에 머물며 소비와 생활로 연결되도록 출생 기본소득과 만원 주택 등 인구 유입·정

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 유치, 향토기업 성장 지원을 함께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전남에서 외부로 유출되던 소득 규모는 2022년 32조 원에서 2024년 12조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국민성장펀드 연계 메가프로젝트 발굴 온힘 펀드 연계 전남형 사업 발굴·추진전략 점검

전라남도는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규모 정책금융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전남형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국민성장펀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남을 대상으로 한 2개 사업(국가 AI 컴퓨팅센터·해상풍력 발전)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12월10일) 이전부터 1차 프로젝트 사업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동안 실국·출연기관 중심의 자체 보고회와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총 9건, 약 1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확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이차출 차등화 인센티브 도입을 금융

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수도권 대비 불리한 투자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금리·금융조건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략산업육을 비롯한 관련 실국과 전남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출연기관이 참석해 실국·기관별 발굴 사업을 보고하고, 국민성장펀드 연계 가능성과 사업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 발굴, 사전 검토, 중앙부처 협의, 정책금융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산업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모델, 자금조달 구조, 파급효과 등을 구체화하고, 연중 수시로 접수하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필 기자

전남도, K-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동

투명 경매시스템 도입한 국제 마린김 거래소 시범 운영

경매에는 도내 마린김 가공업체 34곳이 출품했으며, 국내외 바이어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경매가 이뤄졌다.

최고 입찰가는 박스당 64만 8천 원을 기록했으며, 총 604박스가 거래돼 24억 7천만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구축된 마린김 경매·거래 시스템은 김 품질의 표준화와 투명한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해 국내산 김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는 유통 구조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거래 시스템을 안정화해 목표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 구축 중인 국제 마린김 거래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종자 개발부터 가공·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에 4천235억 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김 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 전국 1위... 탄소중립 실천 선도

284건 5천664ha로 전국 33%... 연간 1만5천397톤 감축 효과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 처음 설정한 목표인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284건에 5천664ha로, 전국 인증면적 1만 8천935ha의 33%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인증면적 1천660ha보다 약 3배인 240% 증가한 결과다.

저탄소 인증규모는 시·도별로 ▲전남 5천664ha ▲전북 4천560ha ▲경북 3천265ha ▲충북 1천996ha 순으로, 전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연간 약 1만 5천397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

경 영향을 최소화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높다.

신규 인증 신청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경으로는 전국 인증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과 전국 최초로 인증 확대 계획 수립·추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친환경 병 등 단지별 단계 신청 유도 ▲순회 설명회 운영 ▲인증 현장 평가에 대한 적극 대응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에 한해 인증 교육 5회 추가 실시 건의 등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우인 기자

광주 청년 10명 중 7명 "일자리 있다면 지역 취업"

전공 살릴 일자리 부족(46.6%)이 가장 큰 장벽

(41.7%)과 광주(40.4%)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여기에 전남(11.1%)을 포함할 경우 광주·전남지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과반인 51.5%에 달했다.

이는 지역 일자리의 질적 개선만 뒷받침된다면 청년 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광주 지역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38.4%)로 긍정적인 응답

(27.7%)을 크게 앞섰다.

지역 내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46.6%) 응답자가 전공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이는 급여 수준이 낮음(18.9%)이나 기업 인지도 부족(1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단순한 임금 격차보다 자신의 전공과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직무의 부재가 일자리 mismatch의 핵심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대학교 조운성 취업학생처장은 "이

/임채일 기자

광주지역 청년 10명 중 7명은 일자리만 있다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와 조선대학교 취업전략팀이 리서치 전문기관 와이즈초이스에 의뢰해 최근 조선대 재학생 및 지역 청년 3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다.

2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기업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 취업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9%가 긍정적(매우 있다 44.0%, 있다 30.0%)으로 답했다.

취업 희망 근무지역 역시 수도권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